

# ‘대량학살 국가관에 반대한다’



홍경안의  
시시일각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종전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란을 향하며 중동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문제는 민간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언론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과 가자지구 보건부 등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년간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 포함 팔레스타인은 4만1802명이라고 보도했다. 사망자의 약 70%는 어린이와 여성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 사망자 수는 1967년의 제3차 중동 전쟁 때보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들은 아랍권이 이스라엘과의 수십 년 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인

명 손실을 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가자전쟁을 제노사이드(Genocide)로 꼽는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민족, 종족, 이념 등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고의적 및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4월, 베니스 비엔날레(La Biennale di Venezia, 2024.04.20.~11.24.) 이스라엘 국가관의 작가 루스 파티르(Ruth Patir)와 큐레이터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가자 학살을 옹호하지 않는다며 휴전과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을 석방 때까지 문을 닫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본전시 예술감독 아드리아노 페드로사(Adriano Pedrosa)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지지했다.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 전부터 수천 명의 예술가, 큐레이터, 비평가들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관을 비엔날레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관들이 들어선 자르디니(Giardini di Castello) 구역에는 대량학살 반대 예술 연맹(A

NGA)을 비롯한 시위대들이 ‘대량학살 국가관에 반대한다’(No To The Genocide Pavilion)는 팸플릿을 뿌렸다. 본전시에도 동일한 맥락의 작품들이 곳곳에 들어섰다.

이처럼 예술가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무의미한 살상’에 연대를 표했다. 여기엔 국가와 인종의 구분은 없다. 전쟁 뒤에 감춰진 파괴적 본능과 정치적 계산, 그로 인해 드러나는 허무와 비극만 존재한다. 윤리적 지향성이 결여된 거대한 폭력에 대한 규탄, 인간 ‘존재’의 근본적 불안과 ‘실존’의 허무를 반영한 ‘저항’이 있을 뿐이다.

광주비엔날레(2024.9.7.~12.1.)는 5.18민주화운동의 저항 정신을 뿌리로 한다. 저항 정신은 곧 ‘광주 정신’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국가 폭력 앞에 당당히 항거하며 이겨냈던 공동체 정신과 기억과 애도, 연대와 투쟁의 미학적·실천적 정신이 광주 정신이라는 것이다. 실제 광주비엔날레는 늘 역사적 시민 투쟁은 물론 여러 동시대 시민 투쟁을 조명하

는 광주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 행사에 역대 최대인 30여개의 국가관을 마련했다. 이스라엘 문화기관인 CDA홀론(국가관)을 앞세운 이스라엘도 포함됐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주제로 한 전시에는 인간의 정의를 묻거나 사회적·정치적으로 은폐된 것들을 되짚는 작업들이 출품됐다. 개중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Diaspora)적 역사를 말한다. 넓게 보면 존재와 실존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타인의 폭력과 고통에 대해선 침묵한 채 애들러 표현한 존재와 실존은 공허하다. 광주정신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인류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국가를 초대한 광주비엔날레는 위선적이며 모순적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진정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연대를 가치로 내걸었다면 세계 많은 예술가들이 그러했듯 ‘대량학살 국가관에 반대한다’고 했어야 했다.

/홍경안(미술평론가)



## OCI, 협력사 임직원 아카데미 체험

OCI가 협력사 임직원 아카데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OCI 우수협력기업 임직원들이 OCI 본사 임직원의 설립자 원경선 원장 기념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OCI



## OCI, 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 진행

OCI가 협력사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4년도 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유신 OCI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OCI

# 코티나 부터 아이오닉5 까지 현대차 57년 역사가 ‘한눈에’

자동차 누적생산 1억대 달성 기념  
한달간 ‘다시, 첫걸음’ 전시 개최



서울 강남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전시장 1층에 마련된 현대차의 첫걸음을 상징하는 첫 생산차 코티나와 첫 고유모델 포니.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최초 조립 생산 모델 ‘코티나 마크2’부터 최신 전동화 라인업까지 57년 역사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대차는 누적 생산 1억대 달성을 기념해 ‘다시, 첫걸음: 원 스텝 퍼더(One step further)’ 전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현대차의 누적 1억대 생산의 의미와 원동력을 살펴보고, 이 여정을 함께한 고객들에게 ‘현대차의 진심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전시장 1층은 현대차 최초 조립 생산 모델인 ‘코티나 마크2’와 포니 수출 20주년을 맞이해 역사적인 첫 고유모델이자 최초의 수출차인 ‘포니 에콰도르 택시’ 실물이 함께 전시돼 현장감을 더해준다. 2층에서는 현대차가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 스마트 팩토리 및 전기차 전용공장을 설립하기까지 생산 제조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장 중간에는 각 시대별로 현대차와 함께한 고객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해 현대차와 고객들이 함께 만들어낸 1억대 달성의 의미를 더했다.

지성원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 전문은 “이번 전시는 생산의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차 한 대에 집약된 숨겨진 노력과 시간을 돌아보고, 자동차 제조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나아가는 현대차의 시간을 고객들과 함께하고자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리복, 프로농구단 삼성썬더스 공식 후원

2024~2025년 시즌 스폰서십



리복 삼성 썬더스 공식 유니폼 착용한 구단 선수들 단체사진. /리복

생활문화기업 LF의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 서울 삼성썬더스 농구단과 함께 한국프로농구(KBL) 2024~2025년 시즌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LF에 따르면 리복은 이번 계약을 통해 2년간 삼성 썬더스 선수와 코치진들에게 유니폼을 포함한 신발, 연습용품, 일상용품 등을 공식 후원한다.

리복의 삼성 썬더스 공식 유니폼은 지난 5일 진행된 2024년 KBL 컵대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구단 공식 유니폼은 리복의 시그니처 로고인 벡터 로고를 강조해 제작됐다는 게 리복 측의 설명이다.

리복의 한국프로농구 공식 후원 계

약은 16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리복은 2007년과 2008년 시즌 안양 KT&G 유니폼과 일부 선수들의 농구화 후원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스폰서십 계약은 2023년, 2024년 시즌 KBL의 상품과 사업권 협약을 진행한 케이엔코리아와의 3자 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KB자산운용, 홀트아동복지회 지원

지난 8일 KB자산운용은 저소득 가정 출산용품 지원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왼쪽)가 심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자산운용



## BNK금융·카자흐 신라인그룹 ‘맞손’

BNK금융그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신라인그룹 본사에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왼쪽 세번째)이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카자흐스탄 신라인그룹 회장(네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

# 메가박스, 뮤지컬 등 클래식 콘텐츠 확대

16일 ‘엘리자벳’ 단독 개봉

메가박스가 오페라, 발레, 미술, 강연 등에 이어 뮤지컬까지 ‘클래식 소사이어티’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메가박스는 2016년부터 ‘클래식 소사이어티’ 큐레이션 브랜드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 클래식 콘텐츠를 관객과 함께 하고 있다.

2009년 국내 극장 최초로 오페라 공연 실황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빈 필하모닉 및 베를린 필하모닉 음악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매년 세계적인 클래식 공연 실황 상영을 비롯해 세계 유명 미술관의 작품과 예술사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강연 프로그램 ‘시네 도슨트’를 2019년부터 진행하며 국내 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써왔다.

메가박스는 ‘가장 가까운 공연장’을



표방하며 본격적으로 ‘클래식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에 뮤지컬 공연 콘텐츠까지 확대해 온영한다. 영화관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

하는 콘텐츠 차별화 전략이다.

메가박스는 오는 16일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 공연 실황 영화 ‘엘리자벳: 더 뮤지컬 라이브’를 단독 개봉한다. 실제 치열한 피켓팅이 펼쳐졌던 옥주현, 이해준 배우의 페어로 큰 스크린과 극장 사운드 그리고 편안한 좌석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단독 개봉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객 투표 이벤트, N차 관람 이벤트로 공연 상품권, 영화 초대권, 배우 사인 포스터 등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10월 11일 (금)  
음력 : 9월 9일

수도권 날씨  
14~2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37 | 해질 / 18:00

연천 10/23, 동두천 11/23, 가평 10/23, 파주 10/23, 서울 14/24, 양평 12/23, 인천 15/22, 수원 14/23, 용인 14/23, 평택 12/23, 백령도 15/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